

‘대순종학’의 영문 표기와 지향점

차 선 근 *

■ 국문요약

대순종학이란 대순진리회를 주제로 삼는 학문을 뜻한다. 이 단어는 1994년 대진대학교에 학과가 설치될 때 그 명칭이 정해졌다. 대순종학은 21세기 이후 ‘Daesoon Theology’로 영문 표기되어왔는데, 이 글은 그 타당성을 살핀 것이다.

‘Theology’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대순진리회의 학문을 설명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다. 17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Theology’에게는 기독교의 고유명사라는 정체성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기 때문이다. 20세기 후반부터 세계 여러 종교의 교학 영문 표기에 ‘Theology’를 사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교리를 심화한다는 목표 아래 기독교적 관심과 관점으로 다른 종교들을 바라보겠다는 맥락을 담은 현상이다. 따라서 대순진리회 연구자들이 기독교 신학을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면, 기독교 신학을 발전 시키는 목적으로 삼는 것도 아니라면, Daesoon Theology라는 영문 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글은 대순종학의 영문 번역을 ‘Daesoon Studies’라고 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이 기독교 신학과 무관한 대순종학의 학문적 성격을 강조하면서도 학계 간 연구의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 대진대학교 조교수, E-mail: chasungun@hanmail.net

러한 번역은 대순종학이 다음과 같은 지향점을 가져야 함을 말해준다:
“대순종학(Daesoon Studies)은 대순진리회 신앙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설명·이해하는 해석적 학문이다.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세계 안에서 대순종학은 객관적이고 귀납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는 과학적 연구를 지향한다. 또한 학제 간 연구를 추구하며, 종교학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한다.”

주제어: 대순진리회, 대순종학, 신학, 궁극적 실재, 세계

- I. 문제 인식의 계기
- II. '종학(宗學)'의 등장
- III. Theology 개념: 고유명사? 보통명사?
- IV. '대순종학'의 영문 표기와 나아가야 할 방향

I. 문제 인식의 계기

사상(thought)은 생각·관념·인식·견해 등을 뜻한다. 이 단어는 보통명사(common noun)로서 많은 주제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기능할 수 있으니, 예를 들면 문학을 담은 문학사상, 종교를 담은 종교사상, 윤리를 담은 윤리사상, 경제를 담은 경제사상, 과학을 담은 과학사상이 있다. 형식이 '○○사상'이므로, 대순진리회를 주제로 삼고 그 내용을 담은 사상이라면 '대순진리회사상'이라고 불러야 한다. 하지만 대개는 줄여서 '대순사상(Daesoon Thought)'이라고 한다. 명칭이 길면 번거롭다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대순사상은 교리와 신앙 등 대순진리회의 다양한 관념과 텍스트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인정받고 있다.¹⁾

대순사상이라는 용어 외에, '대순종학(大巡宗學)'이라는 단어도 있다. '학(學)'은 '학문(學問)'이니, '대순종학'은 대순진리회를 향한 학술적 접근 또는 대순진리회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글을 써오면서 '대순종학'이라는 낱말을 사용해 본 적

1) 대순사상(大巡思想)은 구천상제로 신앙되는 강증산(姜甞山, 1871~1909)의 가르침을 도주(道主) 조정산(趙鼎山, 1895~1958)이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도전(都典) 박우당(朴牛堂, 1917~1996)에게 계승시켰던 일련의 사상체계를 의미한다. 관련한 선행연구 또는 대순사상의 정체성이 만들어내는 문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차선근, 「대순사상의 정체성과 그 연구자료의 문제」, 『대순종학』 1 (2021), pp.19-46.

이 없다. 그 정체성 문제도 고민한 적이 없다.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산하의 대순종교문화연구소에 몸담고 있었던 처지에서, ‘대순종학’이란 그저 대진대학교에 설치된 학과의 이름 정도로만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다.

‘대순종학’이라는 단어를 피할 수 없게 된 계기는 2021년 하반기에 대순종학회가 재창립되고 학술지 『대순종학』의 편집위원장이라는 감투를 떠안게 된 것이었다. 더구나 2022년 초엽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로의 이직은 나에게 ‘대순종학’과 동거하도록 강요했다. 나의 의지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일련의 두 사건은, ‘대순종학’이 초강력 접촉제를 바른 채 나의 일상에 들러붙도록 만들었다. ‘대순종학’이라는 딱지를 달게 되었음에도, 이 단어와 담을 쌓고 살고 있었던 나로서는 그 정체성 문제를 고민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든 것은 얼마의 시간이 더 지나서였다.

지루한 삶을 지향하는 나는 항상 루틴을 따르는 습관이 있다. 대순종학과 출근 이후로도 나는 일상생활의 루틴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는 대순종학과 연구실에 출근했을 때 가장 먼저 그 옆 중앙 복도에 있는 정수기로 가서 마실 물을 유리병에 가득 부어오는 일이다. 첫 출근 뒤 며칠이 지나자, 그동안 무심코 지나쳐왔던 정수기 바로 위에 ‘대순종학’을 나타내는 영문 표기인 ‘Daesoon Theology’ 로고가 붙어있어 있음을 문득 깨닫게 되었다(<그림 1>). 왜 그동안 이게 눈에 안 들어왔을까? 그것을 본 순간, ‘Daesoon Theology’라는 표현이 적당한지 의심이 들었다.

‘Theology’는 기독교 신학(神學)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닌가? 이 기



<그림 1> 대진대학교 대진교육관 4층 중앙 복도에 붙어있는 ‘Daesoon Theology’ 로고

독교적 용어를 대순종학의 '종학' 영문 번역어로 쓰는 게 합당한가? 이 질문은, 번역은 물론이거니와 대순종학의 지향점과 정체성을 묻는 물음이기도 하다. 이 글을 쓰게 된 목적은 이 답을 찾아보고자 함이다.

글 작성에 돌입했을 때, 내가 지향하는 지루한 삶에 희망을 종종 놓곤 하는 지도교수가 나의 연구실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대순종학과로 발령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격려하기 위해 찾아준 것이다. 지도교수는 내 연구실에 들어오기도 전에 중앙북도에 붙은 'Daesoon Theology' 로고를 보고는 대뜸 왜 번역을 저렇게 했냐고 핀잔주었다. 기독교 고유명사(proper noun)를 한국의 대표적인 민족종교인 대순진리회 종학에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종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에게 이 번역이 이상하게 보이는 건 사실이다. 나는 지도교수에게 이미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글쓰기를 시작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도교수는 그 작업을 중단하라고 충고해주었다. 학과 내부에서 논의하여 번역을 바꾸면 될 일이라는 것, 번역 문제는 논문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나도 지도교수의 걱정에 동의했다. 대순종학과에 첫 발령을 받고 출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 학과 이름을 문제 삼는 것은 누가 봐도 건방지게 보일 일이었다. 그래도 내가 이 글을 계속 쓰려고 고집한 이유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대순종학'이라는 어휘의 의미, 역사, 번역, 지향점, 정체성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한 선례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신학과 종교학의 관계를 포함하는 종교학의 역사와 연구 성과를 학계에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종교학자의 부채 의식 때문이었다.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글은 다음의 과정을 차례로 밟을 것이다. 첫째는 '대순종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나왔는지 그 출처를 찾고 그 의미를 밝힌다(II장). 둘째는 'Theology'의 개념과 맥락을 확인함으로써 '대순종학'의 영문 표기로 적절한지를 확인한다(III장). 셋째는 대순종학의 새로운 영문 표기를 제안하고, 그 지향점과 정체성을 살핀다(IV장).

II. ‘종학(宗學)’의 등장

‘종학(宗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불교 ‘종(宗)’의 ‘학(學)’이다. 불교는 중국에 진출한 지 300년 정도가 지나 전성시대에 돌입하였고, 인도 승려 구마라습(鳩摩羅什, 344~413)의 한역(漢譯) 사업 이후 많은 불경이 쏟아졌다. 그 불경들의 내용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불교 교도들은 각자 중시하는 경전 혹은 교리를 취사선택하여[敎相判釋] 가르침을 펴야 했다. 이로써 중국의 불교는 4세기부터 6세기에 걸쳐 삼론종(三論宗), 율종(律宗), 열반종(涅槃宗), 천태종(天台宗), 화엄종(華嚴宗), 정토종(淨土宗), 법상종(法相宗), 구사종(俱舍宗) 등 다양한 종파를 낳게 되었다. ‘○○종’이라는 명칭이 있었던 이 종파 불교들이 저마다 내세우는 교리는 ‘종의 학, 또는 종의 가르침’이라는 뜻에서 ‘종학’으로 이해되었다. 간단히 말해 불교 세계에서 종학은 각 불교 종파의 핵심 가르침(the teaching of a sect) 또는 불교 종파의 학문(the study of a sect)을 의미한다.²⁾

종학은 유교 세계에도 존재한다. 북송의 6대 황제 신종(神宗, 1048~1085)은 1083년[元豐 6年]에 종실(宗室) 자손들에게 유학을 가르치기 위한 기관을 설립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종학(宗學)’이었다.³⁾ 조선이 건국된 후 세종도 대군(大君) 등 종실의 자제들에게 유학을 가르치기 위하여 1428년에 종학을 설치하였다.⁴⁾ 그러니까 유교 세계에서 종학은 특정한 가르침이나 학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실 자제에게 유학을 가르치는 국립학교 기관이었다.

2) 한국불교 대사전 편찬위원회, 『한국불교대사전 6』 (서울: 명문당, 1999), pp.139-140; 김승동, 『불교·인도 사상사전』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1), p.1910; 김길상, 『불교대사전』 (서울: 홍법원, 2011), p.2360; 곽철환, 『시공불교사전』 (서울: 시공사, 2008), p.639.

3) 『宋史』 卷一百六十五 「志」 第一百一十 「職官五」.

4) 『世宗實錄』 卷四十一 세종 10년(1428) 7월 12일.

종학은 불교와 유교에서 각각 나름의 맥락 속에 사용되어 온 용어이지만, '대순종학'의 '종학'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듯 보인다. 장병길(1996)을 예로 들자면, 그는 과학적이고 객관적 연구가 아닌 신학적 연구로서, 자기가 믿는 종교를 옹호하기 위한 학문이 종학인 것으로 규정한다.⁵⁾ 임영창(1996, 1997)도 대순진리회 종지(宗旨)에 대한 학술적 접근을 '종학(宗學)'으로 이해하면서, 종학은 객관적 태도를 견지하는 종교학이 아니라 신앙인이 자신의 종교를 신앙심으로써 해석하는 학문으로 본다.⁶⁾ 최동희(1998)는 모든 종교가 자신의 독자적인 가르침[教義]을 교의학(教義學, Dogmatik)으로 연구해왔음을 지적하고, 그 지성 활동을 기독교는 신학, 불교는 종학, 유교는 경학(經學)으로 불러왔음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대순진리회도 자신의 종교를 연구하여 학술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결과물이 대순종학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종학·신학·경학과 같은 용어들보다는 '교리학' 또는 '교리연구'라는 용어를 더 선호한다고 말한다.⁷⁾ 그러니까 대순종학은 대순진리회 교리의 학술적 연구를 뜻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이경원(2009) 역시 대순진리회의 신앙과 교리를 체계적으로 심화시킨 연구가 종학이라고 보면서, 그 명칭은 다른 종교의 신학이나 교학과 구별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말한다.⁸⁾

대순종학은 대순진리회를 주제로 삼는 학술적 연구이며, 종학은 기독교 신학·불교 교학(혹은 종학)·유교 경학과 구별하고자 부르는 명칭이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그러니까 대순진리회의 신앙과 교리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신앙심이 있는 상태에서 학술적·체계적으로 접근하는 학문을 대순종학으로 생각하고 있다. 나는 이런 이해가 완전히 틀렸다고는 보지 않지만, 약간의 세부적인 설명, 특히 학문

5) 장병길, 「종학의 신앙적 사고」, 『대순사상논총』 1 (1996), p.88, p.94.

6) 임영창, 「대순사상의 신관고(神觀攷)」, 『대순사상논총』 1 (1996), p.126; 임영창, 「대순사상의 신관고(神觀攷): 제2편 상제론」, 『대순사상논총』 2 (1997), pp.603-604.

7) 최동희, 「대순진리의 종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대순사상논총』 6 (1998), p.59.

8) 이경원, 「대순사상 연구의 현황과 전망」, 『대순사상논총』 20 (2009), p.2, p.7.

태도와 관점이 더 보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대순종학이 신앙을 전제로 한 학문이므로 과학적·객관적인 학문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교정되어야 한다. 관련 이야기는 대순종학의 지향점을 기술하는 IV장에서 언급할 것이다.

대순진리회는 자신의 교리 학문을 기독교 신학·불교 교학·유교 경학과는 다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종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왜 하필 ‘종학’인가? 다른 낱말을 정할 수도 있지 않은가? 글로 발표된 자료들 속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의 설치 과정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잘 아는 사람을 수소문해보았다. 그 결과 1994년 대순종학과 설립⁹⁾ 당시, 그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은 지금의 대순사상학술원 원장인 배규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22년 3월 중순, 필자는 의문을 풀기 위해 배규한 원장을 찾았다. 그의 전언에 의하면, 1991년 대진대학교 설립 인가를 받은 후 대순진리회의 교리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때문에 대순종학과 설립이 추진되었다. 당시 거론된 학과 이름 후보는 ‘대순철학’과 ‘대순종학’이었다. 도전께서 결정하신 명칭은 ‘대순종학’이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다만 도전의 당시 말씀 속에서 대순진리회의 교리가 기존의 그 어떤 종교 사상이나 신학과는 다르다는 점, 그리고 그 연구는 이 세상 그 어느 것에도 비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난[宗] 학문[學]이 된다는 점을 살필 수 있었다고 배규한 원장은 증언한다.

정리해보자. ‘대순종학’은 대순진리회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뜻한다. 이 단어는 1994년 말 대순종학과가 설립되면서 처음 세상에 선보였다. ‘대순종학’의 ‘대순’은 대순진리회의 신앙 및 교리 체계가 학문의 대상임을 표시한다. ‘종학’은 불교 혹은 유교가 말하는 종학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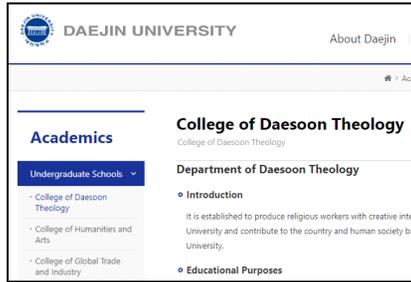
9) 1994년 10월 대순종학과 설치, 1995년 3월 첫 신입생 입학.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홈페이지(<http://daesoon.daejin.ac.kr/4.html>, 접속일 2022. 4. 12) 참조.

아무 상관이 없으며, 기준하는 종교의 사상이나 신학·교학·경학과 완전히 다르면서도 '가장 뛰어난' '학문'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III. Theology 개념 : 고유명사? 보통명사?

1. Theology의 출현과 전개

2022년 4월 현재 대진대학교 영문 홈페이지는 대순종학과의 영문 표기를 'Department of Daesoon Theology'로 하고 있다(<그림 2>).¹⁰⁾ 그러니까 대순'종학'의 공식 영어 번역은 'Theology(씨알러지)'다.



<그림 2> 대순종학과 영문 홈페이지 일부 (2022.4.12)

이 번역의 적절성을 판단하려면 씨알러지의 개념과 맥락을 확인해야 한다. 씨알러지는 라틴어 'theologia(테올리기아)'에서 유래한 단어다. 'theologia'는 그리스어 theos(God: 신)와 logos(reason: 이성, 진리)의 합성어로서, '신이나 신들을 향한 학문 또는 이해(study or understanding of God [or the gods])'를 의미한다.

이 개념의 역사는 기원전 8세기 무렵 헤시오도스와 호메로스 같은 그리스 지식인들이 우주의 기원과 궁극적 본질을 탐구하면서 신들에게 신앙고백을 하거나, 신들을 주제로 설교했던 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씨알러지라는 용어 자체를 최초로 제시한 인물은 플라톤이었다. 그는 신화적인 것들(the mythical)을 묘사하기 위해 씨알러지라는 단어

10) <http://www.daejin.ac.kr/english/html/020102.html>, 접속일 2022. 4. 12.

를 사용했는데, 그때의 씨알리지는 감각 너머에 존재하는 실재이자 모든 것의 원형인 영원불멸의 이데아를 찾는 학문을 의미했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초월적 개념의 이데아에 반대하고 현실적 세계의 실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형상과 그 형상을 만드는 질료들에 주목했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실체는 최초의 질료 [제일질료(first substance)] 즉 부동의 원동자(unmoved mover)이자 존재로서의 존재(being qua being)를 향해 나아가는 목적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씨알리지로 규정하면서, 씨알리지는 수학이나 물리학을 뛰어넘는 가장 명예로운 학문이라고 강조했다.¹¹⁾ 그러니까 씨알리지는 신앙고백에서부터 출발했지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가장 높은 형태의 실재, 즉 이데아나 부동의 원동자를 찾는 탐구 혹은 사색으로 그 의미가 변했다. 이들 뒤에 등장한 스토아학과 철학자들은 씨알리지의 의미를 다시 정립하여 3개로 나누었다. 그것은 ① 대중의 신앙, ② 로마인에게 중요했던 국가 제의와 숭배, ③ 이성을 활용하여 신을 논하는 학문이었다.¹²⁾

그리스 철학의 여러 씨알리지 개념은 곧 기독교에 흡수되어 종합되었다. 기독교가 로마 세계에서 점점 세력을 키워나갈 때 곳곳에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었는데, 그 가운데 이집트 북부의 변화한 항구 국제도시 알렉산드리아에 기반을 둔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철학적 관심이 유독 높았다.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 이 학파의 주장인 클레멘트는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씨알리지를 처음 도입했고, 그의 후계자인 오리게네스는 하느님을 향한 신앙 그 이후의 2차적 반성이 씨알리지인 것으로 확정했다.¹³⁾ 이들에 이어 등장한 아비그리오스와 같은 4세기의 기독교 이론가들도 씨알리지 개념을 빈번히 사용함으로써 씨알리지는 기독교 세계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했던 가장 높은 형태의 실재를

11) Andrew Louth, "theology," 2022 Encyclopædia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topic/theology>, 접속일 2022. 4. 17).

12) 배국원, 『현대종교철학의 프리즘』 (대전: 대장간, 2013), p.292.

13) 같은 책, p.297.

하느님(God)으로 생각했기에, ‘하느님 깊이 생각하기(contemplation of God)’라는 신앙고백 차원에서 씨알러지 개념을 정립했다.¹⁴⁾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 세계에서 씨알러지는 바이블 연구 혹은 하느님의 본성과 하느님의 계획[經綸, oikonomia]¹⁵⁾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그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이에 공헌한 대표적인 기독교 신학자들로는 6세기의 위(僞)-디오니시우스(Pseudo-Dionysius), 11세기의 니세타스 스테타토스, 13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와 보나벤투라 등을 거론할 수 있다.¹⁶⁾

정리하자면, 근대 이전의 씨알러지는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발원하였으나 기독교 세계에 편입된 이후로는 기독교화하여 기독교 고유명사의 길을 걸었다. 그러니까 1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씨알러지는 기독교 신학을 의미하는 고유명사로 기능했다. 이런 배경을 가졌다면,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의 교리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데 씨알러지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해야 한다. 노장의 용어와 개념으로 불교의 교리를 설명하고자 했던 격의불교가 불교의 고유한 가르침을 왜곡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과거 사례에서 살필 수 있듯이, 기독교 고유명사 씨알러지를 사용하여 다른 종교를 설명하려는 행위는 해당 종교의 고유한 특성을 말살하고 기독교식의 해설을 낳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 Theology, 보통명사를 향한 여정

글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사상’은 보통명사다. 그러므로 다양한 대상을 거기에 담아낼 수 있다. 경제사상, 철학사상, 예술사상, 종교사상 등의 사례는 이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이천 년 가까운 세월 동

14) Andrew Louth, *op. cit.*

15) 오이코노미아는 기독교에서 하느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진행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plan으로 번역된다. 경제를 의미하는 영어 economy도 이 단어에서 유래했다.

16) Andrew Louth, *op. cit.*; 배국원, 앞의 책, pp.298-314.

안 기독교 고유명사로 행세해왔던 ‘씨알러지’는 보통명사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용어는 불교나 유교, 도교, 이슬람, 나아가서는 대순진리회의 가르침을 담는 학문적 틀이 될 수 없다. 대순종학의 영문 표기로 씨알러지를 사용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결론은 아직 성급하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점이 남아있다. 그것은 씨알러지가 기독교 고유명사이지만, 보통명사로 나아가는 변화의 기회를 가졌다는 사실이다. 이 진단이 이루어져야, 종학의 번역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씨알러지가 대학 안의 구성원으로 존재할 때, 그리고 대항해 시대 이후 다른 종교들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때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본다.

1) 대학의 발전

씨알러지는 근대 이전 중세에도 그 개념의 변화를 요구받았던 적이 있었다. 그 상황은 1088년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 개교 이후 유럽 각지에 대학들이 들어서면서 만들어졌다. 11세기 이후 등장한 유럽의 대학들은 과거와 달리 학문성을 강조하였기에 바이블 연구로써 기독교 신앙을 강조해오던 씨알러지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저작물이 대학의 교재로 대거 채택되면서, 씨알러지는 일반적인 지식과 이성을 강조하는 철학 연구자들에 의해 학문성을 갖출 것을 강력히 요구받았다.

만약 씨알러지라는 용어가 기독교 신앙에서 탈피하여 일반적인 지식 모듬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의미와 범주를 확장했다면, 씨알러지는 기독교 고유명사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문을 수용할 수 있는 보통명사로 변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씨알러지가 맞은 첫 번째 변화 기회였던 셈이다. 그러나 이 변화는 중세 유럽을 대표하는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저지되었다. 그는 철학을 씨알러지의 밑에 두어 씨알러

지의 시녀 노릇을 하도록 만들었다.¹⁷⁾ 이로써 철학의 저항은 실패했다. 변화의 요구를 짊어누른 씨알러지는 학문성을 강조하는 보통명사가 아니라 신앙성을 강조하는 기독교 고유명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철학을 포함하는 모든 학문 위에 군림하는 군주로서 그 자리를 지켜나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분위기는 피렌체의 콜루치오 살루타티(Coluccio Salutati, 1331~1406)가 로마 시대 시민이 갖추어야 할 교양 지식을 의미했던 '휴마니타스(Humanitas)'라는 단어를 발굴하여 사용함으로써 서서히 달구어졌다.¹⁸⁾ 이 단어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학문을 의미하는 오늘날의 '인문학(humanities)'으로서, 신앙을 강조하는 씨알러지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그러니까 휴마니타스는 기독교 고유명사에서 보통명사로 변화하기를 거부한 씨알러지 대안으로 도입된 명칭이었다.

르네상스와 개신교 개혁(Protestant Reformation)을 차례로 거치면서 휴마니타스의 지위는 점점 상승하였다. 16세기 무렵이 되자 드디어 휴마니타스는 씨알러지에게서 벗어나기에 이른다. 철학·문학·역사는 물론이요, 심지어 음악·미술까지 씨알러지 하위에 놓여 있었던 많은 분과 학문은 속속 독립을 선언하여 휴마니타스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했다.

외톨이로 전락한 씨알러지는 18세기 계몽주의 출현으로 그 위상을 더욱 위협받았다. 기독교 신앙을 그 정체성으로 삼았던 씨알러지는 대학 안에 존재해야 할 당위성마저 의심받기에 이르렀다. 씨알러지는 어떤 식으로든 변해야 했다. 기독교 신학자들의 선택은 신의 직접적인 가르침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신과 만물의 관계를 다루는 모든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씨알러지 개념을 바꾸는 것이었다.¹⁹⁾ 그러나 신의

17) 배국원, 앞의 책, pp.299-314 참조.

18) 조너선 Z. 스미스, 『종교 상상하기: 바빌론에서 존스타운까지』, 장석만 옮김 (과주: 청년사, 2013), p.243.

19) 배국원, 앞의 책, p.317.

주관하에 만물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변화의 정도는 씨알러지가 기독교 고유명사의 정체성을 뛰어넘고 보통명사화되어 보편적 학문 또는 다양한 종교들의 신앙들을 담을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정리하자면, 대학과 계몽주의는 씨알러지를 학문의 절대 군주라는 권좌에서 내려오도록 만들었다. 생존 위기에 직면한 씨알러지는 신의 가르침을 강조하는 차원을 넘어, 만물의 모든 지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 개념을 확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씨알러지는 기독교적 하느님을 향한 신앙을 품고 있었다. 씨알러지는 기독교 고유명사라는 정체성을 유지했으며, 보편적 지식을 담을 수 있는 보통명사화의 길로는 끝내 나아가지 않았다.

2) 종교학의 등장

대학이라고 하는 제도적 환경과는 별도로, 씨알러지에게는 보통명사화하는 또 다른 길이 하나 더 열려 있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종교학, 그리고 세계 신학(World Theology)과 비교 신학(Comparative Theology)의 출현이었다.

원래 유럽인들은 기독교나 유대교, 그리고 그들과 같은 아브라함계통인 이슬람을 종교 전부로 생각하고 있었다. 15세기 이후 항해술의 발달로 신항로가 개척되어 대발견(대항해) 시대가 열리자, 기독교 외에 많은 종교가 전 세계 곳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세기 이후 유럽 지식인들은 쏟아져나온 아프리카·아시아·남북아메리카 종교들을 정리하고 이해하고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들은 당시 유행하던 사조인 진화론에서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 세계 종교들은 발전하는 유기체이며 시간이 지나면 가장 높은 단계의 진화에 도달한 기독교로 차츰 진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²⁰⁾ 이런 상황에서

20) 에릭 샤프, 『종교학: 그 연구의 역사』, 윤이흠·윤원철 옮김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0), pp.71-99 참조.

기독교의 씨알리지 개념과 범주(단적인 예를 들자면 다른 종교에는 최고신 하느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느님의 말씀을 담은 경전이란 게 존재하는지 하는 것)는 세계 각지 종교들을 이해하는 관점인 동시에, 그들의 ‘진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이자 기준으로 자리매김했다.²¹⁾

이런 경향은 20세기 중반까지 이어졌다. 잘 알려진 요아힘 바하(Joachim Wach, 1898~1955)의 종교 표현 형태 세 가지, 즉 이론적 표현(교학과 신념 체계)·실천적 표현(실천과 의례 체계)·사회적 표현(제도와 조직체계)²²⁾조차 기독교 씨알리지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다른 종교를 바라보겠다는 관심의 표현이었다. 기독교 시선으로 다른 종교를 관찰하고 재단하는 이런 작업은 많은 문제를 노출했다. 간단한 사례를 하나 들자면, 바하의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일본의 토착 종교인 신토(神道)는 종교가 될 수 없다. 신토는 제사 의례 중심일 뿐 교조가 없고, 확정된 교리나 경전과 같은 이론적 표현을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기독교 씨알리지를 기준으로 다른 종교를 이해·평가하는 일은 기독교와 가까우면 종교로, 그렇지 않으면 종교에 미치지 못하는(최종 진화 단계인 기독교에 이르지 못한) 야만으로 치부하는 결과를 낳았다. 동양 종교들은 오랫동안 이런 오리엔탈리즘의 폭력적 시선에 시달렸다.

유교가 종교인지 아닌지 하는 논쟁도 이 맥락에서 파악해야 하는 문제다. 만약 판단 기준인 ‘종교’를 신의 존재와 계시를 강조하는 기독교적 개념으로 한정한다면 유교는 그 ‘종교’와 닮지 않았다. ‘종교’를 이신론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한정한다면 유교는 그 ‘종교’와 닮았다. 량치차오(梁啓超, 1873~1929)가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孔教非宗教論]고 선언하면서, 그 근거로 유교는 교육의 영역이지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고 했던 사실을 고려하면,²³⁾ 이 논쟁의 판단 기준이 되는 ‘종교’라는 것은 사실상 신의 존재함과 그 신앙을 강조하는 기독교 씨

21) Andrew Louth, *op. cit.*; “theology”, *Oxford English Dictionary* (<https://www.oed.com>, 접속일 2022. 4. 21).

22) 요아힘 바하, 『비교종교학』, 김중서 옮김 (서울: 민음사, 1988), pp.32-33.

23) 임부연, 「중국의 ‘종교’와 ‘유교’ 논쟁: Kang Yuwei(康有爲)와 Liang Qichao(梁啓超)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137 (2015), p.314.

알려지다. 따라서 이 논쟁은 유교 혹은 유학이 기독교와 얼마나 가까운가를 따지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유교가 종교인지 아닌지 하는 논쟁은, ‘종교’ 개념을 장악함으로써 세계 종교들을 문명과 야만으로 재단하는 기독교 씨알러지의 권력이 작동하는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무익한 것에 불과하다. 유교(유학)는 종교가 될 필요도, 종교처럼 보일 필요도 없다. 유교(유학)는 그저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보한 유교(유학)일 뿐이다.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종교학자 조너선 스미스(Jonathan Z. Smith, 1938~2017)를 비롯한 많은 학자는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해왔다. 그러므로 현대 종교학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 씨알러지 중심의 제국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종교’ 개념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 대신, 세계 곳곳의 지적 전통들의 고유성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고자 한다.²⁴⁾

19세기 후반에 출현한 종교학의 비교연구 역시 기독교 씨알러지를 가치평가의 정점에 놓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러 종교의 기원·구조·특성을 기독교와 비교하여, 그 우월성과 열등성을 파악하는 것이 종교의 비교연구로 인식되었다.²⁵⁾ 이 연구방법론도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고, 20세기 중반에는 거의 쇠퇴하였다. 현재의 종교 비교연구는 기독교 씨알러지 맥락에서 탈피하여 개별 종교의 정체성과 차이점(또는 유사점까지 포함)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20세기 후반 조너선 스미스와 윌리엄 페이든(William E. Paden) 등에 의해 새롭게 재정립된 것이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종교학의 등장과 전개 과정에서 씨알러지는 다른 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보편적인 학문으로 나아간 적이 단 한 번

24) 관련 논의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논문은 조너선 스미스의 「종교, 종교들, 종교적인」이다. 기독교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난 종교학의 관점을 개발하는 노력은 지금도 많은 종교학자의 고민이다. 예를 들어 데이비드 치데스터는 기독교적인 서양의 제국주의 관점을 벗어난 종교연구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그 대안 가운데 하나로 물질종교(material religion) 즉 종교의 동적 물질성(dynamic materiality) 연구를 제안한다. Jonathan Z. Smith, “Religion, Religions, Religious,” in Mark C. Taylor, eds., *Critical Terms for Religious Studi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pp. 269–284; David Chidester, *Religion: Material Dynamics* (Oakland,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8), pp.1–3.

25) 에릭 샤프, 앞의 책, p.6.

도 없었다. 씨알러지는 기독교의 신앙과 교리, 형식을 담은 기독교의 신학을 의미하는 고유명사였을 뿐이다. 현대 종교학자들은 기독교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객관적인 자세에서 전 세계 종교에 있는 각자의 고유성과 특징을 읽고자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씨알러지라는 틀 속에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나 사상을 담지 않는다.

3) 세계신학과 비교신학의 등장

종교학자들이 세계의 다른 종교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과 같이, 기독교 신학자들 역시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 이들은 씨알러지에 다른 종교의 교학을 담고자 했으니, 이때의 씨알러지는 세계 씨알러지(World Theology, 세계신학)로 불린다.

그러나 씨알러지에 다른 종교의 교리를 엮는 작업은 기독교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지적되어야 한다. 이 용어의 학계 도입을 강조한 사람은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Wilfred Cantwell Smith, 1916~2000)였다. 그는 ‘종교’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그 대신에 ‘축적적 전통(종교 유산)’과 ‘신앙(개인의 내면적 체험)’을 사용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신앙’을 표기하기 위해 세계 씨알러지 개념을 제시했다. 이 개념은 하느님의 인간 구원 방법이 기독교에 가장 많이 나타나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어떠한지 하는 관심을 반영한 것이었다.²⁶⁾ 종교학자이지만 원래 개신교(장로회) 목사였던 그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로스 리트(Ross Reat)와 에드먼드 페리(Edmund F. Perry)가 공동 저술한 『A World Theology(세계신학)』도 기독교(감리교)의 주교 찰스 브래세어스(Charles W. Brashares)의 제안에 따라 출판된 것으로서, 기독교적인 관심인 ‘인간의 중심적 실재(Central Reality of Humankind)’가 힌두교·불교·유대교·기독교·이슬람에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명한 책이다.²⁷⁾ 최근 영문으로 출판된 『A Theology of DAO(도의

26) Wilfred Cantwell Smith, *Towards a World Theology: Faith and The Comparative History of Religi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1), p.168, pp.170-171.

신학』 역시 기독교(장로회) 신학자인 김흡영의 작품이다.²⁸⁾ 그러니까 세계 각 종교의 교리를 씨알러지라는 틀에 담아 설명하는 사람들은 대개 기독교 신학자들이라는 말이다.

세계 씨알러지와 더불어 살펴야 할 개념은 비교신학 즉 비교 씨알러지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교류가 강조되는 지구촌 시대를 맞아 다른 종교들과의 만남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과 대화하고자 했고, 그렇게 해서 만든 개념이 바로 이것이다. 비교 씨알러지의 필요성을 제안한 인물로 대표적인 학자는 가톨릭 사제이면서 시카고대학의 신학 교수이기도 한 데이비드 트레시(David Tracy), 그리고 감리교 목사이자 보스턴대학 신학대학원장 겸 교목실장인 로버트 커밍스 네빌(Robert C. Neville)이다.

먼저 트레시의 주장부터 살펴보자. 그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종교 전통들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그 작업을 비교 씨알러지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그러니까 불교 교학이든, 유교 경학이든 간에, 종교를 다루는 학문적 접근이라면 그 모두를 씨알러지라는 용어로 부르자는 것이다.²⁹⁾ 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대순종학도 대순 씨알러지로 불릴 수 있다. 그러나 그때의 씨알러지는 기독교 고유명사이며, 어떤 종교 사상이든 다 담을 수 있는 보통명사가 아니다.

트레시는 자신이 말하는 씨알러지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 기독교의 유산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유일신 또는 신/신들을 향한 신앙을 강조하지는 않으며, 그저 각각의 종교를 향한 지적인 이해를 의미할 뿐이라고 강조한다.³⁰⁾ 트레시의 주장은 종교다원주의를 맞아 기독교 고유명사였던 씨알러지의 족쇄를 풀어서 보통명사

27) N. Ross Reat and Edmund F. Perry, *A World Theology: The Central Spiritual Reality of Humanki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특히 pp.ix-x 참조.

28) Kim, Hüb-yōng, *A Theology of Dao* (New York: Orbis Books, 2017).

29) David Tracy, "Theology: Comparative Theology," in Lindsay Jones, chief eds., *Encyclopedia of Religion 13* (Detroit: Macmillan Reference USA, 2005), pp.9126-9127.

30) *Ibid.*, p.9126.

로 나아가도록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가 말한 보편 학문으로서의 씨알러지 관심은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 구성된다.

- ①(연구 대상인) 종교는 인간의 문제(예를 들어 고통·무지·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리고 그 이해는 인간의 상황을 다루는 다른 해석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 ②(연구 대상인) 종교가 제공하는 궁극적 변화(계몽·해방·구원)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다른 방법들과 어떤 관련을 맺는가?
- ③(연구 대상인) 종교는 궁극적인 실재(자연·空·거룩함·성스러움·神性·하느님·신들)의 본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이해는 다른 전통들의 이해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³¹⁾

트레시는 이러한 질문들이 각 종교 이해에 적용되어야 하는 씨알러지의 주제라고 규정하면서, 결국 그것은 ‘궁극적 실재의 본성(nature of ultimate reality)’ 또는 ‘궁극적 실재 그 자체(ultimate reality itself)’를 찾는 물음이라고 말했다.³²⁾

그가 말한 질문 ①과 ②는 인간의 존재와 구원, ③은 최고신을 주제로 한 논의다. 이 물음들은 ‘최고신이 인간을 창조하여 존재하도록 만들었고, 인간은 죄[原罪, 自犯罪]를 짓고 타락했으니 구원받아야만 한다’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신앙이 다른 종교에도 있는지, 있다면 기독교의 경우와는 어떻게 다른지 하는 기독교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씨알러지는 ‘궁극적 실재’를 찾는 것이어야 한다는 트레시의 주장도 기독교에 입각한 관심을 나타낸다. 주지하듯이 ‘궁극적 실재’ 또는 ‘궁극적 관심’으로 종교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독일 출신의 미국 신학자 폴 티리히(Paul Tillich, 1886~1965)였다. 요아힘 바하 등의 종교학자들이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던 덕분에, 1960년대 미국에서는 대학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종교교육 기관도 종교를 이런 관

31) *Ibid.*, p.9126.

32) *Ibid.*, p.9131.

점에서 정의하고 가르쳤다. 1970년대 들어 로버트 베어드(Robert D. Baird), 한스 페너(Hans Penner)와 같은 종교학자들이 등장하여 종교를 궁극적 관심이나 궁극적 실재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행위는 기독교의 틀을 다른 종교들에 뒤집어씌우는 것으로서 결국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이후에는 ‘궁극적 관심’이나 ‘궁극적 실재’라는 관점을 다른 종교 이해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점차 줄어들었다. 조너선 스미스는 이 문제와 관련한 미국 종교학계의 경향을 정리하고, 탈리히는 기독교(특히 개신교)의 씨알러지에 근거해 다른 종교를 연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었던 과거 사실까지 들추면서, 사실상 그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인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³³⁾

결국 궁극적 실재, 또는 궁극적 관심을 주제로 하는 물음을 씨알러지로 규정하고, 거기에 다른 종교의 교학을 담아보자는 트레시의 주장은, 기독교적 관심에 입각하여 다른 종교를 관찰하자는 것을 제안했던 것에 불과하다. 그가 말한 비교 용어로서의 씨알러지는 보통명사가 아니라 기독교 고유명사였던 것이며, 불교 씨알러지, 유교 씨알러지, 도교 씨알러지는 기독교인의 문제의식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 불교 신학, 유교 신학, 도교 신학을 의미했다.

트레시와 더불어 비교 씨알러지의 필요성을 주장한 또 다른 인물은 앞서 언급한 대로 네빌이다. 네빌은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세계 종교들의 씨알러지를 연구할 것을 주장했기에, 그의 비교 씨알러지는 흔히 ‘조직비교신학(Systematic Comparative Theology)’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네빌이 세계 종교들의 이야기들을 씨알러지에 담아내기 위해 제시한 문법은 신론(神論)·초월·종교신앙의 존재론적 근거와 바탕으로, 곧 개신교의 관심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불교나 도교 등 세계 종교들의 고유한 이야기와 특징을 그들의 관점에서 살피고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개신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들이 세계 종교들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그

33) Jonathan Z. Smith, “Tillich[’s] Remain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78:4 (2010), p.1139, pp.1147-1153.

가 말한 비교 씨알리지였다.³⁴⁾ 가톨릭 사제였던 트레시가 가톨릭의 관점에서 세계 종교들을 이해하고자 했다면, 네빌은 감리교 목사였기에 개신교(감리교)의 관점에서 세계 종교들을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다.

트레시와 네빌 이후 비교 씨알리지를 학문 주제로 삼아온 가톨릭·개신교 신학자들의 입장도 그들과 같다. 그들은 비교 씨알리지의 학문적 목표를 ‘다른 종교를 탐구함으로써 그들의 진리를 찾되, 그 진리를 기독교 씨알리지 안에 흡수시키는 것’으로 삼는다.³⁵⁾ 이 때문에 동방 정교회의 사제이자 영국 더럼대학교(University of Durham)의 신학자 겸 종교학자 앤드루 라우쓰(Andrew Louth)는 씨알리지가 고대 그리스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 내용과 방법은 기독교 안에서만 얻었다고 지적하면서, 그 때문에 기독교 맥락의 씨알리지를 불교나 도교 등 다른 종교들의 교학을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은 관습적이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비판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다른 종교들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 맥락에 놓인 고유명사인 씨알리지를 다른 종교의 신학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매우 제한된 범위와 수정된 형태여야만 한다고 조언한다. 그가 말한 제한된 범위와 수정된 형태의 씨알리지만 다음과 같다.³⁶⁾

(다른 종교의 설명을 담는 학문 틀 씨알리지는) ① 그 종교의 가르침(교의학 또는 신앙의 교리)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② 세계 속의 인간 존재를 해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회 및 정치 구조·제도의 성향과 같은 행동규범(신앙에서 파생된 윤리)을 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진리를 주제로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하며, 기독교 변증론(apologetics)과 기독교 논증법(polemics)과 맞닿아야 한다.

라우쓰는 불교나 도교와 같은 종교의 교리를 기독교적인 씨알리지

34) 월터 캡스, 『현대종교학 담론』, 김중서 외 옮김 (서울: 까치글방, 1999), pp.437-439.

35) 김성원, 「포스트모던 종교다원주의와 “비교신학” 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신학논총』 30 (2011), pp.39-41, p.48, p.66.

36) Andrew Louth, *op. cit.*

틀에 담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씨알러지의 개념에 제한을 가한다면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세계 종교들의 씨알러지 내용이 기독교 변증론·논증법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따라서 라우쓰가 제안한 ‘제한되고 수정된 용법의 씨알러지’조차 기독교적 관심에서 다른 종교를 바라보겠다는 연구 태도를 넘어서지 못한다. 라우쓰는 씨알러지를 다른 종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했지만, 씨알러지의 개념을 수정한다면 적용할 수 있다고 한 그의 제안마저도 잘못이었던 셈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대순종학을 대순 씨알러지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씨알러지가 3세기에 기독교 세계에 흡수되어 기독교 고유명사가 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통명사 형태로 쓰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독교 학자들도 지적하듯이, 이런 고유명사에 다른 종교의 교리를 담는 것은 관습적이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 20세기 후반부터 불교 씨알러지, 도교 씨알러지와 같은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용어들은 가톨릭 트레시, 개신교 네빌과 캔트웰 스미스, 동방정교회 라우쓰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 관심에서 기독교의 교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을 두고, 기독교 신학의 틀을 사용하여 불교를, 도교를 각각 바라본 이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인들은 대순종학을 대순 씨알러지로 부를 수 있다. 그들의 관심과 목적에서는 그것이 정당하다. 기독교적 관심에서, 기독교 교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독교 신학의 문제의식 속에서 대순종학을 바라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대순진리회 연구자라면 대순종학을 대순 씨알러지로 부르는 일이 적절하지 않다. 종학은 종교 교학의 한 종류에 해당하므로 기독교와는 무관하게 그저 일반적인 영문 표기인 씨알러지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 어원과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한다. 대순 씨알러지라는 영문 표기

는, 대순진리회 교학자들이 기독교적 관심에 서서, 기독교의 ‘엄격한’ 잣대와 ‘융통성이 떨어지는 딱딱한’ 학문 방법으로써 대순종학을 연구하고 있다는 오해를 준다.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대순종학은 기독교 신학을 최고의 진리로 삼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 따라가기에 급급하다는 인상마저 줄 수 있다. 대순종학의 종학이 이 세상 다른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난 학문이라는 도전의 의도를 담은 단어임을 고려한다면, 대순종학의 영문 표기는 기독교를 연상시키는 지금의 번역에서 벗어나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IV. ‘대순종학’의 영문 표기와 나아가야 할 방향

씨알러지는 대순종학의 적절한 번역어가 아니다. 그렇다면 대순종학을 어떻게 영문으로 번역해야 하는가? 학과 창설 당시 도전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종학’은 기존하는 종교의 사상이나 신학과 다르면서 가장 뛰어난[宗] 학문[學]을 의미한다. 이것을 글자 그대로 영문으로 옮긴다면 ‘the most distinguished studies’, ‘the greatest studies’, ‘the most superior studies’ 등이 되겠다. 그러나 학문 앞에 이런 형용사를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학문 앞에 붙는 과도한 수식어는 학문성을 훼손할 위험을 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학’은 형용사 ‘종(宗)’을 생략하고 ‘학(學)’인 ‘studies’라고만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대순종학의 영문 표기는 ‘Daesoon Studies’라는 것이다. 이 번역은 <표 1>에서 보듯이 불교나 유교, 도교의 교리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studies’로 표기해 온 학계의 관행을 참조한 것이기도 하고, 학제 간(interdisciplinary) 연구리는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표 1〉 불교·유교·도교를 주제로 한 학술지들의 영문 표기

학술지 이름	영어 표기
불교학연구	Korea Journal of Buddhist <u>Studies</u>
불교학리뷰	Critical Review for Buddhist <u>Studies</u>
한국불교학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Buddhist <u>Studies</u>
한국불교사연구	Journal for the <u>Study</u> of Korean Buddhist History
불교철학	Journal for the <u>Study</u> Buddhist Philosophy
유교사상문화연구	The <u>Study</u> of Confucian Philosophy and Culture
유학연구	<u>Studies</u> in Confucianism
도교문화연구	Journal of The <u>Studies</u> of Taoism and Culture
국제도교학회지	Journal of Daoist <u>Studies</u>

대순종학을 Daesoon ‘Studies’로 번역한다면, ‘Studies’라는 표현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는 지향점이 있다. 이것은 결국 대순종학의 정체성으로 이어진다. 이를 간단히 제시해본다.

첫째, 대순종학은 대순진리회를 향한 신앙고백이 아니다. 그 신앙고백을 학문적으로 설명하고 번역하며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원상생의 뜻이나 어원을 설명한 뒤에 그것을 두고 인류를 위한 영원한 평화 사상을 품고 있다고만 단정한다면, 그것은 신앙고백이지 학문이 아니다. 해원상생이 왜 영원한 평화 사상이 되는지, 그 이유를 보편적 관점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학문성을 갖추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존재하는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는 설명(explanation)에 머무르지 않고, 해석학(hermeneutics)을 도입하여 번역(translation)·주석(exegesis)·해석(interpretation)·이해(understanding)에 도달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³⁷⁾ 다시 말해서 대순종학은 대순진리회 신앙과 교리를 주제로 하는 ‘해석적’ 학문이다.

둘째, 대순종학은 대순진리회 신앙을 설명하는 학문이기는 하지만,

37) 설명과 해석은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강돈구, 『종교이론과 한국종교』 (서울: 박문사, 2011), pp.29-31 참조.

그렇다고 해서 지적이고 이성적일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II장에서 언급했듯이 장병길·임영창 등은 대순종학을 호교론적인 신학적 연구로 보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대순종학의 정체성을 이렇게만 규정하고 마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크다. 장병길·임영창의 설명은 대순종학이 이성과 합리성을 담보하지 못한 것으로서 대순진리회 신앙심이 충만한 수도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학문으로 읽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오해는 대순진리회를 향한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라야 대순종학을 이해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대순종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신앙심이 부족한 사람을 대순진리회로 인도해주는 학문이 될 수 없고, 신심이 약한 대순진리회 입문자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으며, 오직 믿음이 가득한 사람이라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면, 대순종학은 그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대순종학은 신앙을 전제로 하므로 학문 방법 측면에서는 분명히 연역적이다. 그러니까 일정한 사실을 진실로 인정하고, 그것을 계속된 실험으로써 증명해나가는 플라톤의 사유 방식이다. 그러나 연역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성·논리·증명을 빠뜨려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대순종학 역시 대학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학문의 한 분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순종학이 신앙을 설명·번역·이해하지만, 이성·합리성·논증을 장착함으로써 학문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대순종학은 연역적이지만, 귀납법을 사용하는 과학적 연구 태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 이를 위해 윌리엄 페이든이 제시한 ‘세계(world)’ 개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페이든에 의하면, 종교는 자신의 세계관 속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를 구축하며 그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게 한다.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으므로 그들이 구축하는 세계 역시 많고, 그 세계들은 각각 독립적으로서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페이든의 생각이다.³⁸⁾ 종교의 세계는 그 자신의 고유한 설정 속에서 구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논

의라면 신앙이나 성스러움을 ‘수이 제너리스(*sui generis*)’한 현상으로 간주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는다.³⁹⁾ 예를 들어 스파이더맨은 거미줄을 쏘고 벽을 기어 다니지만, 이 캐릭터가 살아가는 세계의 설정이 원래 그러하므로, 그 규칙을 알고 있는 관객들은 도시 건물들을 스윙하는 스파이더맨을 보면서도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스파이더맨의 행동이 주어진 설정 속에서 개연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이성적·논리적이려면, 그것은 얼마든지 설득력을 획득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 역시 자신의 세계관과 설정 속에서 자신의 종교 세계를 구축한다. 그러한 종교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라면, 연역적이거나 수이 제너리스하다거나 하는 비판 없이, 귀납법을 사용하는 과학적 설명이 가능하다. 그 모두는 대순진리회 세계에서 주어진 설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순진리회 세계 안의 논의는 수족관 안에 갇혀 움직이는 물고기 신세에 불과하며, 더 넓은 현실 세계로의 확장은 도모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순종학이 학문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 방식의 귀납적 연구, 즉 객관적이며 검증이 가능한 과학적 연구를 반드시 활용해야만 한다. 그 방법이 ‘당장은’ 수족관 안(대순진리회가 구축하는 종교 세계)에서만 가능하다면, 그러한 환경이라도 마땅히 이용해야 한다. 수족관 안에서라도 제대로 성장을 시킬 수 있다면, 그 수족관의 환경을 대양과 유사하게 차츰 확장함으로써 더 큰 성장을 유도할 수 있고, 나아가 드넓은 대양에 진출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대순종학은 종교학과 거리를 두는 학문이 아니다. 대순종학은 종교학의 연구 방법과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그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종교학의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한다.

과거 종교학의 역사를 거칠게 요약하자면, 종교학은 기독교 씨알러

38) 윌리엄 페이든, 『비교의 시선으로 바라본 종교의 세계』, 이진구 옮김 (파주: 청년사, 2004), pp.75-84.

39) William E. Paden, “Tracks and Themes in A Shifting Landscape: Reflections on 50 Years of the Study of Religion.” *Religion* 43:1 (2013), pp.95-97.

지에서 탈출하는 여정 속에서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교학과 기독교 씨알리지 사이의 갈등은 1960년 독일 마르부르크에서 개최된 국제종교학회(IAHR)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 당시 학회장에서는 베르블로프스키(R. J. Zwi Werblowsky, 1924~2015)가 엘리아데, 어윈 굿이너프, 키타가와 등 당대의 쟁쟁한 종교학자들이 서명한 ‘종교학이 씨알리지의 한 분과가 아니며, 진리 자체를 진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냉정한 입장에서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⁴⁰⁾ 종교학과 씨알리지의 팽팽한 긴장은 60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종교학자들 사이에는 지금도 씨알리지, 나아가 다른 종교의 신학까지도 배타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남아있다.⁴¹⁾

조너선 스미스는 이 문제에 간단히 대응했다. 그는 1986년 에릭 샤프와 함께 초청받은 산타바바라 콜로키움에서 “종교와 종교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던 경험을 소개했다. 이 물음은 종교적 믿음 내지 씨알리지와 같은 종류의 신학들과 종교학의 ‘불편한’ 관계는 어떻게 조성되어야 하는지 묻는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 샤프는 이 ‘힘겹고 영원한’ 문제를 풀려고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기울였지만 별다른 해답을 찾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스미스는 간단한 답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종교학이 신학자를 토착 정보원(native informant)으로, 씨알리지와 같은 신학·교학들을 종교학의 연구자료로 삼는 것이었다.⁴²⁾

사실, 에릭 샤프도 그의 주장과 같다. 그 역시 종교학이 신학들과 거리를 두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계와 지식계 양쪽에서 종교학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게 그 이유였다.⁴³⁾ 1989년 미국종교학회 회장

40) 에릭 샤프, 앞의 책, pp.339-340; 강돈구, 앞의 책, pp.14-22.

41) 미국과 한국을 각각 대표하는 미국종교학회와 한국종교학회는 대체로 이 입장에 따라 운영되어오고 있다. 조현범, 「한국종교학의 현재와 미래」, 『종교연구』 48 (2007), pp.12-13.

42) Jonathan Z. Smith, *On Teaching Religion: Essays by Jonathan Z. Smi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p.73-75.

43) 월터 캡스, 앞의 책, p.443.

로버트 윌켄(Robert L. Wilken)도 종교계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냉정한 2차적 담론만 고수하는 종교학은 ‘이야기 소재 목록을 삭막하게 가지치기하는 것’에 불과하며 ‘종교학자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의 범위를 좁힌다’고 비판했다.⁴⁴⁾

스미스·샤프·윌켄처럼 선구적인 종교학자들은 대순종학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다. 대순종학도 다가오고자 하는 종교학 이라면 멀리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종교학과와 선(先)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비교연구 등 그 학문 방법과 관점을 도입하여 대순종학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대순종학은 학제 간 연구를 지향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대순종학을 ‘Daesoon Study’가 아닌 ‘Daesoon Studies’로 영문 표기한 이유도 학제 간 가능성을 열기 위한 것이었다. 대순종학과 종교학의 만남은 학제 간 연구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한 대순종학의 지향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대순종학의 사전적 정의와 정체성 정립이 가능하다: “대순종학(Daesoon Studies)은 대순진리회 신앙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설명·이해하는 해석적 학문이다.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세계안에서 대순종학은 객관적이고 귀납적인 방법으로 검증하는 과학적 연구를 지향한다. 또한 학제 간 연구를 추구하며, 종교학과도 적극적으로 교류한다.”

대순종학을 연구하는 학술 모임은 대순종학회다. 이 학회는 2018년 8월에 처음 창립되었으나 단 한 번의 활동도 하지 못하고 폐쇄된 상태로 있다가, 3년이 지난 2021년 겨울에야 운영진이 바뀌고 재창립되는 절차를 거쳐 어렵게 그 첫걸음을 떼 수 있었다. 대순종학의 정체성을 고민한 연구가 늦었던 까닭이 여기에도 있다. 앞으로 대순종학 그 자체를 주제로 활발한 학문적 토론이 더 많아짐으로써 대순진리회의 신앙을 담은 그릇이 더 단단해지고 넓어지기를 기대한다.

44) 같은 책, p.444.

【참고문헌】

『世宗實錄』

『宋史』

강돈구, 『종교이론과 한국종교』, 서울: 박문사, 2011.

곽철환, 『시공불교사전』, 서울: 시공사, 2008.

김길상, 『불교대사전』, 서울: 홍법원, 2011.

김성원, 「포스트모던 종교다원주의와 “비교신학” 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신학논총』 30, 2011.

김승동, 『불교·인도 사상사전』,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1.

배국원, 『현대종교철학의 프리즘』, 대전: 대장간, 2013.

에릭 샤프, 『종교학: 그 연구의 역사』, 윤이흠·윤원철 옮김,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0.

요아힘 바하, 『비교종교학』, 김종서 옮김, 서울: 민음사, 1988.

윌터 캡스, 『현대종교학 담론』, 김종서 외 옮김, 서울: 까치글방, 1999.

윌리엄 페이든, 『비교의 시선으로 바라본 종교의 세계』, 이진구 옮김, 과주: 청년사, 2004.

이경원, 「대순사상 연구의 현황과 전망」, 『대순사상논총』 20, 2009.

임부연, 「중국의 ‘종교’와 ‘유교’ 논쟁: 강유웨이(康有爲)와 량치차오(梁啓超)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137, 2015.

임영창, 「대순사상의 신관고(神觀攷)」, 『대순사상논총』 1, 1996.

_____, 「대순사상의 신관고(神觀攷): 제2편 상제론」, 『대순사상논총』 2, 1997.

장병길, 「종학의 신앙적 사고」, 『대순사상논총』 1, 1996.

조너선 Z. 스미스, 『종교 상상하기: 바빌론에서 존스타운까지』, 장석만 옮김, 과주: 청년사, 2013.

조현범, 「한국종교학의 현재와 미래」, 『종교연구』 48, 2007.

차선근, 「대순사상의 정체성과 그 연구자료의 문제」, 『대순종학』 1, 2021.

최동희, 「대순진리의 종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대순사상논총』 6, 1998.
한국불교 대사전 편찬위원회, 『한국불교대사전 6』, 서울: 명문당, 1999.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홈페이지(<http://daesoon.daejin.ac.kr/4.html>, 접속일 2022. 4. 12.)

Andrew Louth, “theology,” 2022 Encyclopædia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topic/theology>, 접속일 2022. 4. 17.)

David Chidester, *Religion: Material Dynamics*, Oakland,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8.

David Tracy, “Theology: Comparative Theology,” in Lindsay Jones, chief eds., *Encyclopedia of Religion 13*, Detroit: Macmillan Reference USA, 2005.

Jonathan Z. Smith, “Religion, Religions, Religious,” in Mark C. Taylor, eds., *Critical Terms for Religious Studi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_____, “Tillich[’s] Remains …,”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78:4, 2010.

_____, *On Teaching Religion: Essays by Jonathan Z. Smi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N. Ross Reat and Edmund F. Perry, *A World Theology: The Central Spiritual Reality of Humanki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Wilfred Cantwell Smith, *Towards a World Theology : Faith and The Comparative History of Religio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1.

William E. Paden, “Tracks and Themes in A Shifting Landscape: Reflections on 50 Years of the Study of Religion.” *Religion* 43:1, 2013.

Oxford English Dictionary (<https://www.oed.com>, 접속일 2022. 4. 21.)

■ Abstract

**The English Translation and Orientation
of ‘Daesoon Jonghak’**

Cha Seon-keun

Professor, Department of Daesoon Theology, Daejin University

Daesoon Jonghak refers to the study based on Daesoon Jinrihoe. This term was coined in 1994 when the department was established in Daejin University. The English translation for Daesoon Jonghak, ‘Daesoon Theology’ has been used since the 21st century. However, this paper carefully examines its validity regarding that term.

An attempt to using the word, ‘theology’ to explain about the study of Daesoon Jinrihoe does not seem appropriate. The word, theology, has had Christian identity as a proper noun for far beyond 1,700 years until now. A few cases related to studies of various religions have used the term, ‘theology,’ since the late 20th century. Nevertheless, it is the phenomenon that has reflected the intention to perceive other religions in the Christian perspective and interest under the target of intensifying Christian doctrines. Accordingly, as for the researchers of Daesoon Jinrihoe, if not considering Christian theology as the absolute norm, they should not transliterate Daesoon Jonghak into Daesoon Theology.

This paper suggests transliterating Daesoon Jonghak into Daesoon Studies. That is because the term emphasizes not only its academic accomplishments, but also finds the possibility to carry out multidisciplinary researches. Such transliteration depicts that Daesoon Studies should have goal and direction as follows: first, Daesoon Studies is the hermeneutic learning that systematically and reasonably approaches the belief of Daesoon Jinrihoe as well as explains and understands it. In the religious world of Daesoon Jinrihoe, Daesoon Studies aims for the scientific research by means of objective and inductive methods. In addition, it pursues multidisciplinary researches and actively communicates with religious studies.

Keywords: Daesoon Jinrihoe, Daesoon Studies, Theology, ultimate reality, world